



###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 본격 시행

농어민들이 빌린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등 부채경감 조치가 지난 3월 5일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작년말 잔액 7조4천억원)의 금리가 현행 연 4%에서 1.5%로 경감되고 상환기간도 보통 3년거치 7년 상환에서 5년거치 15년 분할로 완화된다.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시 6.5%로 저리대체해준 상호금융(7조원)과 2000~2003년 6.5%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2조1천억원)의 대출 금리도 3%로 인하되며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4천700억원)의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2000~2003년 8.9% 안팎으로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7조원에 대해서도 금리 5%,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체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다만 금리 5% 적용은 매년 이자 납일일까지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된다.

농림부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현재도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민(영농조합, 농업회

사법인 등 포함)이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과 상호금융 대체자금의 경우는 신청과 농가 부채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연대보증피해자금도 신청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대출을 받은 농협 등을 통해 5월말까지 접수받고 나머지 금리인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 농림부, 축산업등록제 세부시행지침 마련

축산법시행령 개정 공포 이후 농림부가 최근 시행규칙을 공포한 이후 축산업자의 등록을 위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양식에 따라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군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시·군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 기준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에 따라, 돼지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농가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가축사육시설면적은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축사라도 실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축사가 아니더라도 가축을 사육할 경우 등록대상이다. 사육두수는 등록당시 사육두수를 기재하고 출하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축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최근 1년간 평균사육두수를 기재하면 된다.

또한 축산업의 휴·폐업과 영업재개 및 등록 변경 신고시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은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축산업 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면 된다.

한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농가 및 영업장이 해당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휴·폐업·영업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시와 지위계승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가축의 개량·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농림부, 단위면적당 적정 돼지사육 기준 입안예고

농림부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성장단계별로 웅돈이 9.7㎡, 번식돈의 경우 임신돈 1.4㎡, 분만돈 3.9㎡, 번식대기돈 1.4㎡(스틀), 3.1㎡(군사), 후보돈 3.1㎡(군사)이며, 비육돈의 경우 자돈 0.3㎡, 육성돈 0.6㎡, 비육돈 0.9㎡이다. 이중 포유중인 자돈은 사육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경영형태별로 일관경영은 0.89㎡, 번식-분만 경영은 2.5㎡, 번식-분만-자돈 경영은 0.9㎡, 자돈-비육 경영은 0.7㎡, 비육 경영은 0.87㎡로 정했다. 총 두수는 포유자돈을 제외한 전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돼지의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은 성장단계별 또는 경영형태별 기준 중 택일하여 계산하면 된다.

### 농림부,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제정고시

- 양돈장 소독조 의무 설치, 주1회 이상 소독 실시해야

농림부는 지난 3월 11일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강화 및 소독의 일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방법, 실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을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양돈장의 경우 차량 및 사람이 출입하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돈사출입구 등에 의무적으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하며,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우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기준 위반시 과태료 등에 처해지게 되므로 소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농림부, 도체중 및 등지방두께 상향 조정

농림부는 지난 3월 13일 고급육 생산을 위한 돼지출하체중 증가로 현실에 부합하는 돼지등급판정기준 등이 필요함에 따라 등급별

도체중 범위와 등지방두께를 조정하는 등의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도체중량은 '98년 개정 이후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되 사료의 효율성 및 질을 고려하여 하위체중은 상향시키고, 상위체중은 현행을 유지기로 했으며, 등지방두께는 최근의 구매경향이 육질중시이고, 수태지의 거세로 인한 생리적인 등지방 두께를 고려해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이 개정됐다.

### 양돈자조금 초대 관리위원장에 최영열 본회 회장 선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는 지난 3월 4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영열 본회 회장을 양돈자조금 초대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관리위원 19명중 17명의 관리위원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최영열 본회 회장을 초대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부위원장에 김동환 위원, 진길부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 자조금관리위, 농가 및 도축장에 홍보활동 역량 집중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돈자조금의 거출을 위해 전국 양돈농가 및 도축장 등 관련 업계에 대한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3월중에 자조금 징수 협조를 독려하고 자조금 사업에 대한 공감대

의 형성을 위해 각 지역의 양돈자조금 대의원과 본회 도협의회장 및 지부(회)장, 관리위원, 양돈조합장 등과 함께 각 지역의 도축장을 방문해 도축장 관계자들을 만나 자조금 거출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전국의 농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3월 하순부터 4월 초까지 각 도별 순회 행사를 개최하고, 농가들이 양돈자조금 사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 가축계열화사업자 사료영세율 적용 확대

농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가 계열농가에 가축(육성축)을 공급하기 위해 계열주체가 직접 사육하는 종돈 및 자돈에게 급여되는 사료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지난 3월 2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2월 25일 사료 영세율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예규를 개정,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가축계열화업체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축산업 수입 금액 산정시 배합사료 판매매출액을 해당 업체의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 '가축이동통제' 시스템 3~4월중 도입 예정

'가축이동통제' 시스템이 3~4월중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 질병방역부장은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축산경영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브루셀라·돼지콜레라·오제스키 등 주요 가축질병 대부분이 감염축의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가축이동통제시스템을 3~4월 중 도입해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생기면 역추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과원은 질병 피해가 크고 가축 이동이 잦은 양돈분야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삼고 강원 철원, 경기 안성, 경남 고성, 경북 포항, 전남 나주, 전북 장수, 충남 천안, 충북 충주 등 전국 8개도의 시·군 1곳씩을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정했다.

### 배합사료값 평균 8~9% '인상'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한 민간배합사료업체들이 지난해말 평균 8.8% 사료값 인상에 이어 지난 10일을 전후해 평균 8~9%선에서 배합사료값 인상을 단행했다. 배합사료업체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해상운임비 폭등과 국제사료곡물수급 불안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국제사료곡물값이 울들어 심화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업체별로는 대한제당 9.0%, 퓨리나코리아 8.63%, 대상 8.5%, CJFeed 9.0%, 천하제일사료 9.0%로 각각 인상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이들 업체중 농협중앙회와의 계약물량에 대해서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사료값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곧이어 중소배합사료업체들과 협동조합 등도 사료값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농림부, 38개 시·군 구제역 특별관리

구제역(FMD) 특별방역을 위해 38개 시·군이 집중 관리된다. 최근 농림부는 구제역 특별방역을 위해 과거 구제역과 돈열이 발생한 34개 시·군과 가축 밀집사육지역 4개 시·군 등 모두 38개 시·군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독약품 지원대상을 돼지의 경우 300두 미만에서 500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월 2회 이상 시장과 군수가 주재하는 '지역방역협의회'를 개최, 소독 상황 등을 점검토록 했다.

집중 관리 지역은 경기 인천, 서구, 강화, 김포, 이천, 여주, 화성, 평택, 포천, 안성, 화성, 용인, 파주, 강원 철원, 충북 영동, 충주, 진천, 청원, 충남 당진, 홍성, 아산, 보령, 연기, 전북, 김제, 부안, 익산, 장수, 완주, 정읍, 전남 화순, 나주, 경북, 경주, 영덕, 영주, 상주, 영천, 문경, 성주, 경남 김해, 함안, 울주 등이다.

### 농림부, 3~5월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 설정

농림부는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 방역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2월 19일 중앙부처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 국장, 수의과학검역원, 본회 등 축산관련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관계부처·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 황사 발생 심각, 전국적 황사현상 발생

지난 3월 10일 등 최근 전국에서 황사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황사가 나타나면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에 따라 황사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황사 발생 빈도와 농도가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 2002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어 농가에서는 황사 발생에 따른 철저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필리핀,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 허용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한국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세자르 필리핀 농림부 차관은 지난 2월 19일 농림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 한국의 수출인증 육가공 공장으로부터 가공된 돼지고기의 수출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돈열이 발생했던 경북, 경기, 충북은 제외되었다.

필리핀으로 수출이 공인된 주요 육가공장은 경남의 부경양돈조합과 유성, 유니푸드, 신라푸드, 가천산업, 우강산업, 모던, 풍국푸드, 충남의 중부블류센타, 대전충남양돈조합, 사조산업, 논산 축협, 전북의 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 대전의 성효산업 등 총 14개소이다.

## 자돈 돈열 항체 양성률 급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이 발표한 올해 1월 검역원 및 각 시·도별 돈열 항

체 및 항원검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1월 한달간 돈열 항체양성률은 9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비육돈 94.4%, 번식돈 97.1%, 자돈 84.7%로 비육돈과 번식돈은 지난 달 각각 93.7%, 97.0% 보다 다소 올랐으나, 자돈의 경우 돈열 항체양성률이 지난 달(97.4%)보다 12.7%포인트나 급락했다.

## 유행성 설사병 전국적으로 발생 급증

- 1월 PED 발생 3,239두 전년 동기비 64% 증가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1월 가축전염병발생 월보에 의하면 돼지 전염성위장염(TGE)과 오제스키병은 전국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돈열의 경우 충북 영동에서 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유행성설사병(PED)의 경우 5개도 13개 양돈장에서 3,236두의 돼지에서 설사병이 발생해 작년 1월 1,968두에 비해 64.4%가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설사병 발생농가 및 돼지 두수는 경기 2농가 160두, 충남 2농가 520두, 전북 4농가 706두, 전남 3농가 1,100두, 경남 2농가 750두로 나타났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4월1일 발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4월 1일부로 발효된다. 한국과 칠레 양국 정부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회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4월1일자로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2월 25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정부는 칠레 정부가 2월16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뒤 4월 1일자 발효를

제안해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칠레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협정이 오는 4월 1일부터 발효되면 칠레산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종돈, 배합 사료 등 224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이와 함께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인 돼지고기·닭고기 등은 9.1%가 낮아지는 등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가 본격화된다.

### 전국 폭설피해 6천억원

지난 3월 4~5일 내린 서울, 경기 지역과 충청 경북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전국에서 모두 약 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지난 3월 17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농작물 1,573ha, 비닐하우스 2,538ha, 인삼·버섯 재배시설 4,325개소, 축사 6,945동이 피해를 입고 가축 140만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최종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조류독감 재발, 경기 양주 등에서

조류독감이 한달 보름만에 경기도 양주 양계장에서 다시 발생했다. 또 지난 1월 경남 양산에서 포획된 까치에 대해서도 조류독감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닭이나 오리가 아닌 국내 야생조류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부는 지난 3월 22일 경기도 양주시 산란계 농장의 닭에서 조류독감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농장에 남아있던 닭 1만6,000여마리를 살처분했으며

농장주변 반경 10km이내 지역에 대해 이동통제를 실시중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인 경남 양산에서 잡은 까치 99마리와 까마귀 1마리를 검사한 결과, 까치 1마리가 조류독감 양성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조류독감은 지난해 12월 15일 충북 음성 양계장에서 처음 발견된 뒤 지금까지 18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한달 보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 도축검사원 주5일 근무시 대체인력 확보돼야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전국의 주요 도축장들마다 도축검사원들도 주5일 근무를 실시해 도축 검사 업무가 중단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축검사원의 주5일 근무 시행은 현재에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월 2회로 늘어나고, 내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도축검사원의 주5일 근무가 본격 시행돼 검사업무가 5일로 단축되게 되면 양돈농가의 경우 대규모 양돈장에서는 출하돈의 과체중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브랜드육 계약 양돈장의 경우 토요일 휴무시 브랜드육 가공 물량이 감소해 계약 농가는 일반 공판장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어, 이럴 경우 기존 브랜드육 출하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되어 농가 소득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특정일(금요일 또는 월요일) 물량 급증 또는 급감시 돼지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농가들은 원활한 도축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공수의를 활용한 대체인력 확보나 윤번제 등을 실시해 공판장 업무가 중단되어 수급, 계류, 시세문제로 양돈농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농림부, 축산물 우수브랜드 인증제 추진

축산물에 대해 우수 브랜드 인증제가 연내 실시된다. 농림부는 최근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중 인증지침을 마련한 뒤 신청접수 및 평가를 거쳐 10월부터 인증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 오는 2013년에는 브랜드 규모화를 통해 돼지의 경우 전체 사육두수의 70%가 각각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농림부의 장기 목표다.

이와 관련해 우수 축산물브랜드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축·사료·사양관리의 통일로 품질의 균일성을 갖춰야 하고, 친환경 사양관리와 도축·가공시 HACCP를 준수하는 등의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해야 되며, 아울러 안정적인 물량 공급 능력을 확보한 규모화를 이뤄야 한다.

### “우리 축산농가 돕기” 축산물 브랜드 행사 개최

양돈, 양계, 계육,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단체들은 우리축산물 소비홍보를 위해 3월 12일(금)부터 21(일)까지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

백화점 본점에서 롯데쇼핑(대표이사 이인원)이 개최하고 있는 “우리축산물 애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도움시다” 오픈 행사에 참석해 소비자들에게 우리축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돼지고기 등 우리축산물 시식 및 할인행사 등을 갖는 등 소비홍보를 했다.

### 축단협 회장에 남호경 한우협회장 선출



남호경 축단협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2월 2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1층 릴리움에서 2004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김건태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부회장에는 최영열 본회 회장, 박순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에는 한형석 계육협회장, 양정화 낙농진흥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3년 축단협 활동과 회계 결산·감사보고 등이 있었으며, 신축산회관 건립 추진은 부지를 계속 물색키로 하고,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가축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인천 해양경찰청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위로기로 했다.

### 농림부, 과장급 전보 인사

▲축산정책과장 서기관 안호근(전 축산물 위생과장), ▲축산물위생과장 서기관 석희진

(전 통계기획담당관)

**김경남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취임**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3월 4일 김경남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경남 신임소장은 국가기술

경남 축산물등급판정소

고시를 합격하고 73년부터 농

산물검사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국립 종축원 지소장, 농림부 축산국 유통과장·경영과장, 축산연구소장 등 축산 행정 및 연구 분야를 두루 거친 축산 전문가이다.

**여주축협장에 윤상의 현조합장 당선**



지난 3월 9일 여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치러진 제8대 조합장 선거에서 윤상의 현조합장이 재선됐다. 윤상의 조합장은

윤상의 여주축협장

본회 여주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윤 조합장은 지난 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여주조합장에 당선되었다.

**「2004년 양돈산업의 정책방향과 현안과제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양돈협동조합연합회(회장직무대행 진길부)는 지난 3월 17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양재동 소재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2004년도 양돈산업의 정책방향과 현안과제 해결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04년도 양돈산업의 정

책방향, 양돈자조금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방향, 2003년 양돈농가 경영실적 전산발표, 농장 HACPP적용과 무항생제 사육기술, 부위별 수급안정을 위한 소비확대 방안, 양돈분뇨자원화 사업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농림부, 「축산물브랜드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농림부는 지난 3월 18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양재동 소재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축산물브랜드육성 정책방향과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 초청·발표를 통해 우수 브랜드로의 발전방안 제시 및 브랜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축산물브랜드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브랜드경영체의 결성과 조직관리, 브랜드의 자산가치 향상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및 한우브랜드·돼지브랜드 관리의 성공사례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2004년 한국경제와 육류시장 전망」세미나 개최**

미트저널은 3월 25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구 축협중앙회)에서 “2004년 한국경제와 육류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04년 축산물유통정책 방향 △2004년 한국경제 및 해외경제 동향과 전망 △육가동산업 현황과 전망 △국내·수입산 돼지고기 시장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양돈**